

꺼지지 않는 열정,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윤 2000년 (23세/만 22세) | 남

✉ taynk0220@naver.com

☎ 010-3205-4353

☎ 010-3205-4353

📍 (17779) 경기 평택시 탄현로

- 📌 **핵심역량**
- 검수담당자로서 제품의 문제에 대한 빠른 파악이 가능합니다.
 - 검품·규격 담당자로서 규격서, 기준서 등 서류를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력사항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경력 3년 9개월	희망연봉 회사내규에 따름 (직전 연봉 : 2,450 만원)	희망근무지/근무형태 서울전체 정규직	포트폴리오 -
------------------------	--------------------------	---	----------------------------------	-------------------

학력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19.03 ~ 2022.05	중퇴	공주대학교(천안) (야간 / 충남)	경영	-
2016.03 ~ 2019.01	졸업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마이스터고 (식품제조공정과)	-

경력 총 3년 9개월

근무기간	회사명	부서/직급/직책	지역	연봉
2018.10 ~ 2022.06 (3년 9개월)	팜에이트	품질관리팀 / 사원 (팀원) / 4년 차	경기	2,450만원
📌 담당업무 검수				
📌 퇴사사유 업직종 전환				

자격증/어학/수상내역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2016.06	자격증/면허증	식품가공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합격
2018.07	자격증/면허증	전기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합격
2017.12	자격증/면허증	환경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합격
2016.02	자격증/면허증	정보기술자격(ITQ)한글엑셀 A등급	한국생산성본부(KPC)	최종합격
2016.02	자격증/면허증	정보기술자격(ITQ) 아래한글 A등급	한국생산성본부(KPC)	최종합격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어릴 적부터 나가 노는 것,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하던 지루한 것들과는 달리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을 시도해보면 결과가 어떻게든 재미가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도 실패가 많아도 매번 시도하다 보면 한번은 성공하는 날도 오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찾아낸 그 방법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도 내가 만든 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며 또 다른 사람도 그 길 속에서 다른 길을 찾아내다 보면 결국 지금보다 훨씬 재미있고 가치 있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괴짜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듯이 늘 같은 거보다는 색다른 다소 이상한 방식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안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소리를 듣더라도 오히려 즐겁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저의 장점은 잘 웃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웃다 보니 가끔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친구들이 화가 난 줄 알 정도로 잘 웃습니다. '잘 웃는다' 라는 것은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웃으면 우울했던 마음도 기분이 좋아지고 처음 보는 사람도 경계심을 풀고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일에 빠지면 굉장히 깊게 빠집니다. 정말 풀고 싶은 수학문제가 생기면 풀릴 때까지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푹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풀고 나면 속이 뻥 하고 뚫린 느낌이 들고 다음에 풀 때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러니 쏟아 부은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단점은 남이 부탁하는 것을 쉽사리 거절하지 못합니다. 나도 바쁜데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면 일단 도와주어 제일 제때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이 오히려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뿌듯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말 급하지 않거나 꼭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과학 창의력 발명품 대회에 4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나갔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나간 발명품은 '침몰하지 않는 배였습니다.' 이산화망가니즈와 과산화수소수의 반응을 이용해 배의 균형을 잡고, 균형이 잡히지 않을 시 차선책으로 전자석을 이용해 하나로 뭉쳐있던 배 안의 방들이 침몰과 동시에 전원이 꺼져 각각의 구조물이 되어 방만 물에 뜨게 하는 구조의 배였습니다. 어디서 부터 시작할지 막막했지만 작은 아이디어라도 하나 둘 씩 뵈고 다가 그 때 즈음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고 "세월호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하자" 라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온 주제는 '침몰하지 않는 배' 였고 문득 배가 침몰하지 않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었으나 각자 맡은 역할을 열심히 구상, 설계 및 제작하였고 '다들 열심히 했을 텐데 나 때문에 완성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위해 달리면서 우리의 목표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한 결과 몇 주 뒤 "침몰하지 않는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대회장에서 배에 관해 설명하고 어떠한 원리로 작용하는지 내가 맡은 부분의 설명이 끝나고 안심하고 있던 찰나 다음 차례의 친구가 긴장한 나머지 대사를 잊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은 발표였지만, 우리가 아쉬운 만큼 그 친구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해 재밌었으니 결과는 신경 쓰지 말자며 서로를 위로해주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금상을 받았지만, 이 대회를 통해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협동과 배려 공감을 배우며 대상 못지않은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